

# 3D프린터로 만든 가구...예술이네!

May 24, 2018 | 전지현 기자



네덜란드 디자이너 요리스 라만이 3D프린터로 만든 램프 작품 아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홍남】

## 3D프린터로 만든 가구...예술이네!

**네덜란드 디지털장인 요리스 라만展**  
**행성 궤적 같은 램프·드래곤 의자 등**  
**미래 지향적인 아트 퍼니처 전시**  
 “청사진만 있으면 어디서든 제작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추구”

내년 초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운하 ‘아우데제잇스 아흐테르부르흐발 (oude zijds achterburgwal)’에 3D프린터로 만든 강철 다리가 세워진다. 길이 12.5m, 폭 6.3m로 스테인리스 스틸 4.5t과 와이어 1100kg가 사용됐다. 2015년 6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시행착오 끝에 이 다리를 제작한 네덜란드 디자이너는 요리스 라만(39). 산업용 로봇 4대와 용접기, 용접용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MX3D 프린터로 다리를 출력한 후 하중 시험을 거치고 있다.

공산품을 뛰어넘어 건축물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세상을 놀라게 한 그는 혁신적 예술가이기도 하다. 과학을 적용해 예술적인 조형물을 창조하고 있다. 서울 국제갤러리 2관(K2)에 펼쳐진

그의 개인전 ‘요리스 라만 램: Gradients(경사도)’에 가면 예술 가구의 미래를 볼 수 있다. SF(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전위적인 곡선의 의자와 테이블, 상들리에가 빛나고 있다.

특히 전시장 1층 천장에 매달린 ‘Strange Attractor Lamp(스트레인지 어트랙터 램프. 이상한 끌개 램프)’는 행성 궤도처럼 신비롭다. 마치 뒤리를 들고 고개를 쳐든 뱀 같기도 하다.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란 똑같은 궤적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역학적 힘으로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이름을 따서 ‘로렌츠 끌개’라고도 한다. 라만은 3D프린팅된 폴리아미드(나일론)에 구리와 니켈을 도금한 후 형광등을 장착해 독특한 상들리에를 만들었다.

대상을 입체적으로 출력하는 3D프린팅 특성상 그의 작품에선 곡선의 미학이 돋보인다. 전시 제목이 경사도(기울기)인 이유다. 스테인리스 스틸을 3D프린팅한 ‘드래곤 벤치’는 물결치는 듯한 용의 몸통 위에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세포 형태가 뻗어나가는 듯한 라운지 의자도 눈길을 끈다. 알루미늄을 3D프린팅했으며 육각형 셀(cell·세포)은 의자 다리 등 부분에 맞게 변형했다. ‘보텍스 콘솔’은 일자형 선반 끝부분에 강한

소용돌이 장식이 돋보인다. 미국 예술가이자 과학자, 프로그래머인 마크 J 스톡의 컴퓨터 기반 보텍스 기법 연구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AI(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미래에도 효율적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형태로 인간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싶다”고 설명했다.

호두나무로 만든 의자 ‘Maker(메이커)’ 시리즈도 탁월한 곡선미를 지니고 있었다. 육각형이나 그물망 무늬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췄다. 작가는 이 의자들 청사진을 인터넷에 배포해 3D프린터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변형·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라만은 “디지털 공예의 장점이 바로 전 세계 어디서든 제작·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장인이 지난 4년간 실험한 작품 30여 점이 독특한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 작품 제작 과정을 기록한 영상과 스케치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번을 졸업한 작가는 2004년 요리스 라만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 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전시는 6월 17일까지. 전지현 기자